

日本에 있어서 왜관 연구의 동향

야마구치 가요(山口華代)

I. 머리말	1. 근세 초기의 왜관 - 絶影島倭館에서 毛浦倭館으로 -
II.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왜관 연구	2. 草梁倭館
III. 중세 왜관의 연구	V. 맺음말
IV. 근세 왜관의 연구	

I. 머리말

‘일본의 왜관 연구’라는 부여된 과제에 대하여 주로 일본에서 보고·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전쟁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왜관연구의 동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倭館이란 좁은 의미로는 15세기 초부터 19세기에 걸쳐 한반도에 설치된 일본인 사절을 위한 접대시설(客館)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객관을 포함하여 그 주변에 퍼져 있는 일본인을 위한 거주지역을 가리킨다. 그 시작은 15세기 초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존재했던 시설로서, 외국에서 온 외교사절을 접대하기 위한 客館이었다. 당시 한양에는 중국 사신을 위한 太平館, 북방의 女眞에게는 北平館, 그리고 일본 사절을 위한 東平館이 있었다. 이 東平館의 통칭이 倭館이며, 일본인 使送이 상경했을 때 머무는 장소였다[小田省吾 1929·中村榮孝 1964·田代和生 1981, 2002].

일본인의 客館이 설치된 배경에는 고려왕조 말부터 한반도에 피해를 가져다 준 倭寇 금압이라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었다. 왜구대책에 고심하던 조선정부는 다양한 방책으로 왜구에서 평화적인 통교자로의 전환을 꾀했는데, 그 중 하나가 왜인을 정식 사절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사절에게는 조선과 무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정부는 연이어 건너오는 왜인이 한반도의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하고 있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入港場을 제한했다. 使送船 등 선박의 정박지를 한반도 남부 연해지역인 富山浦와 乃而浦(薺浦) 두 곳으로 한정했다. 나중에는 전술한 두 곳에 추가하여 鹽浦가 入港場으로 정해졌으며, 이들 세 곳을 일본인 통교자가 寄港하는 浦所로 정했다(三浦制). 이 浦所의 개설과 동시에 倭館도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1510년의 三浦倭亂으로 浦所倭館은 폐쇄되었는데, 對馬 宗氏의 교섭으로 통교관계가 부활하자 薺浦만을 개항했으며, 얼마 후 釜山浦가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1544년(甲辰) 蛇梁津倭變으로 다시 통교가 단절되었고, 이때 薺浦가 폐지되고 釜山浦 한 곳으로 한정하게 된다.

日朝關係는 文祿・慶長の役(壬辰倭亂)으로 일시 단절되기는 하지만, 전후에는 다시 倭館이 설치되어 일본 통교자를 받아들이는 체제를 취했다. 처음에 豆毛浦에 倭館이 설치되지만, 부지가 협소하여 선박의 출입에도 자유롭지 못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對馬藩에서 이전을 요망했다. 조선과 장기간에 걸쳐 이전교섭이 진행되지만, 1678년에는 이전 예정지로 草梁項이 선정되었고, 이후 對朝鮮通交의 유일한 거점으로서 幕末까지 對馬藩 관계자의 거주가 계속되었다. 明治維新을 맞이하자 1872년(明治 5)에 外務省이 신속하게 倭館을 管轄下에 두었고, 이에 倭館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했다.

상술한 것과 같은 변천을 가진 倭館이지만, 對馬宗家文書에는 7~8할 정도가 ‘和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머지 2할은 ‘倭館’이란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田代和生 1997). 일본을 倭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하며, 조선도 중국을 따라서 ‘倭’자를 사용하는데(倭人, 倭寇 등), ‘倭’가 멸시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自國을 표현할 때 이 글자를 피하고 발음이 같은 ‘和’자를 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倭館이 朝鮮政府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倭館’이란 호칭을 사용하고자 한다(현재 일본사 연구의 통일적 견해를 나타내는 指標로 생각되는 《國史大辭典》(吉川弘文館)에는 ‘倭館’(집필자·田代和生)으로 항목을 만들었다).

장기간에 걸쳐서 존재했던 倭館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존재 모습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연구논문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을 망라적으로 논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대에 따라 대표적인 논문을 기초로 연구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Ⅱ.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왜관 연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연구는 倭館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으며, 전근대 日朝關係史의 변천을 이야기하는 중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많다. 그 이유로서 사용 가능한 사료의 제한과 대외관계사 연구의 빈약한 축적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武田勝藏은 조선 측 사료만이 아니라 對馬宗家文書를 이용하여 중세의 三浦에 대하여 그 변천과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武田勝藏 1922].

이 시기의 왜관 연구의 특징 중 하나로 전근대에 존재했던 倭館을 일본인 거류지로 발전했던 근대도시 釜山의 前史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단서라고 할 수 있는 高橋章之介는 自著 《宗家と朝鮮》에서 전근대 日朝關係史를 저술할 때 對馬宗氏が 이룩한 공적을 다시 평가하는 속에서 倭館을 다루고 있다[高橋章之介 1920]. 구체적으로는 중세의 三浦倭館에서부터 근세의 釜山倭館, 그리고 明治維新 후에 倭館 부지 및 건물이 처분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 豆毛浦에서 草梁으로 이전할 때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1678년(延寶 6) 年紀를 가진 倭館竣工圖가 딸려 있으며, 후세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어 유익하다.

구 釜山民團議員이 조직한 釜山甲寅會 역시 釜山前史로서 日朝通交史를 정리한 것이다[釜山甲寅會 1921]. 중세의 ‘三浦和館’에서부터 ‘釜山和館’에 이르기까지를 다루는데, 근세 釜山倭館에 비중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館守’·‘裁判(외교담당자)’·‘通詞’ 등 倭館役人과 倭館 이전교섭을 다룬 <移館事考>, 관내에서의 禁制를 다룬 <和館制札>, 관내에서의 여성 문제와 이를 단속하는 約條에 관한 <交奸約條> 등 뒷날 연구대상이 된 사안의 다수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釜山 주변의 명승유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시기에 倭館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小田省吾이다[小田省吾 1925, 1929]. 小田은 조선총독부 편집과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日朝關係 자료의 수집과 倭館 舊蹟의 현지조사, 幕末 이래 釜山에 거주하고 있던 古老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연구와 결부시켰다. 개항 이후에 草梁倭館을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부산지역에 전근대의 유산인 倭館의 역사적 경관을 드러내는 일은 어렵지만 倭館研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 밖에 문헌자료를 이용한 기초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근세 草梁倭館에 있던 ‘設門’은 倭館의 일부가 아니라 일본인 단속을 위하여 조선이 설치했던 것이라고 하며[武田勝藏 1922]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小田省吾 1925].

Ⅲ. 중세 왜관의 연구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때까지 대외관계사 연구의 축적을 바탕으로 日朝關係를 양국 간의 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동아시아사 속에서 파악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사료에 입각한 실증적인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중세 왜관에 대해서는 조선정부가 지정한 入港地였던 富山浦·乃而浦·塩浦 등 이른바 三浦의 설치와 도시적 발전 속에서 언급된다.

中村榮孝는 해당 시기의 日朝關係는 14세기 중엽부터 한반도 연안 지역에 피해를 준 倭寇 대책을 위하여 일본인에 의한 통교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서술했다[中村榮孝 1964].

일본의 정식 使者로 인정한 자(客倭·使送倭人) 및 소금이나 어물 등 조선 주민들과 교역에 종사하는 자(商倭·興利倭人) 등이 등장했다. 또 倭館 주변에는 다수의 倭人이 건너와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恒居倭人), ‘倭人居留地’로서의 성격이 강해져 갔다.

村井章介는 동아시아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중세 倭人의 모습을 ‘마지널 맨’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파악했다. 중세의 三浦에 대해서는 항만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海東諸國紀》에 남아 있는 그림에 현지답사를 통해서 알게 된 三浦 주변의 경관과 지리적 상황을 합쳐서 왜인거류지가 설정된 지리상의 공통점을 지적하였다[村井章介 1993].

Ⅳ. 근세 왜관의 연구

1. 근세 초기의 왜관—絶影島倭館에서 豆毛浦倭館으로—

豊臣秀吉이 일으킨 文祿慶長の役은 그때까지 이어져 오던 日朝關係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우선 원칙적으로 일본인의 상경이 금지되고, 釜山浦가 유일한 入港場이 된다.

小田省吾는 文祿慶長の役이 종결된 직후, 아직까지 日朝關係가 불안정하던 시기에 釜山浦 건너편의 絶影島(通称, ‘牧ノ島’)에 임시 倭館이 설치되었던 사실을 밝혀냈다[小田省吾 1929].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倭館이었으므로 장차 일본과의 통교가 본격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使節 접대소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에는 불충분했던 모양이며, 1607년에는 豆毛浦에 倭館이 설치되었다.

1609년의 己酉約條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조선과 對馬 사이의 통교관계가 회복되자 德川 정권에 의한 안정된 日朝關係도 이에 호응하여 豆毛浦倭館은 日朝貿易의 거점으로서 번영해 간다. 豆毛浦倭館 주위는 처음에는 木柵이었지만 나중에 돌담을 쌓는 등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짐으로써 양국인의 혼재를 막는 방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豆毛浦倭館은 부지가 좁고, 항구가 멀리까지 얕은데다가 바람이 강해서 寄港地로서의 조건을 갖춘 땅이라고 보기는 힘든 지역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對馬藩은 조선정부에 대하여 倭館地 이전을 요청하고, 대략 20년에 이르는 교섭과정을 거쳐서 1687년에 草梁項으로 이전하는데 성공했다(‘倭館移轉問題’에 대하여는 후술). 덧붙여서 對馬藩에서는 성립연대의 新舊에 따라 豆毛浦倭館을 ‘古館’, 나중에 이전한 草梁倭館을 ‘新館’으로 부르며 구별하고 있다(松浦允任 《朝鮮通交大紀》 등).

2. 草梁倭館

1678년에 이전한 草梁倭館에 대해서는 방대한 문헌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다양한 테마 및 분야에 걸친 연구를 들 수 있다.

長正統은 근세의 日朝關係를 잔존하는 ‘記錄’의 측면에서 새롭게 파악했다[長正統 1968]. 長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에 비하여 기록체제가 늦게 정립되었지만,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기에 일본 측의 기록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 시기를 日朝關係에 있어서 ‘기록의 시대’로 이름 지었다. 長의 연구는 對馬藩 宗家文書群에 있는 왜관관계 기록을 토대로 한 것인데, 기록 증대의 요인으로 외교교섭 현장에서 무력을 배경으로 했던 힘의 외교시대는 끝나고, 先例에 기초한 고도의 논리성이 필요하게 되어 기록의 중요성이 증폭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① 草梁倭館의 개요

草梁倭館은 대체로 동서 400칸, 남북 250칸으로 대략 10만평 넓이의 공간이며, 관내에 中山(龍頭山)이 있고, 그 서쪽은 外交의 場이며(西館), 동쪽은 거주구역 및 경제활동의

場이라고 하듯이 구역에 따른 기능분화가 보인다. 400~500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했으며, 그 구성원도 武士 뿐만 아니라 상인·職人·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城下町처럼 변화함을 보였다. 또 對馬府中에 있는 西山寺의 末寺인 東向寺(臨濟宗)도 있고, 供養寺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보내는 書契를 검사하는 등의 일에 종사했다 [田代和生 2002].

金義煥은 중세부터 근세, 그리고 근대까지 포함해서 倭館의 변천을 通時的으로 정리했다[金義煥 1977]. 근대의 釜山 개항 이후에 왜관이 일본 專管地가 되어가는 과정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19세기에 조선 각지에 설치된 日本專管地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듯이 근대까지 분석한 왜관 연구는 특징적이다. 그밖에 日朝貿易에 있어서 거점으로서의 倭館의 상업적 역할에 착안하여 倭館에 관한 日朝 쌍방의 職官 구성과 그 역할을 밝혔다 [金義煥 1983a]. 또한 倭館에서 행해지는 무역형태에 대하여 개관하고, 아울러서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對中國 무역과 비교 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金義煥 1988].

田代和生은 근세 日朝關係史 연구 중에서도 늦게 시작된 日朝交易에 착안하여 對馬宗家文書を 분석대상으로 하면서, 무역액과 거래품 등 경제사적 측면에서의 실태를 연구했다[田代和生 1981]. 그 연구에 따르면, 당시의 日朝交易은 일본과 조선 양국 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는 廣域的인 경제권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倭館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차 언급하고 있다. 왜관연구로는 日朝交易史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근세 釜山倭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때까지의 연구에서는 倭館을 총체적으로만 파악해 왔는데, 田代는 倭館을 구성하는 건조물의 명칭과 역할 등 내부구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외교의 場이었던 西館과 경제활동의 場으로서의 東館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倭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長正統이 對馬宗家文書の 왜관관계 기록(國立國會圖書館 소장)을 기초로 倭館의 役人の 구성과 직무 분담, 기타 역대 館守와 裁判의 人名, 재임기간을 밝혀서 왜관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었다[長正統 1968]. 그밖에 조선 측 사료도 취급하여 日朝 양국의 職官 구성에 대하여 고찰한[金義煥 1983a] 것도 있다. 그 중에서도 [田代和生 1981]에서는 對馬藩의 倭館 役員人事에 대하여 藩의 對朝鮮 무역정책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등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倭館移轉問題

倭館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戰前부터 이미 小田省吾가 論究하고 있다[小田省吾 1929]. 小田은 중세까지 조선 측 사정에 따라 倭館의 설치장소가 결정되었던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對馬藩의 요청으로 이전이 실현된 사실로 비추어보아 그 이해에는 조선쪽 자료뿐만 아니라 對馬측 사료와 대조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倭館의 이전 문제를 다룬 [尹裕淑 2003]은 집요하게 이전을 요구하는 對馬藩과 이에 대하여 수동적인 조선이라는 동일한 구도로 묘사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연구를 비판하고, 그 극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尹裕淑에 따르면, 20년이나 계속된 이전 요구의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1660년대 후반부터 전환을 맞이했던 점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으로 건너가는 창구의 변경과 大船越 開鑿 등 對馬 영내에 있어서 對朝鮮 통교시설의 정비와 관련성이 있음을 示唆한다. 또 對馬藩은 幕府의 양해를 얻음으로써 移館을 ‘幕命’으로까지 격상시키는 정치공작이 행해졌음을 명백히 밝혔다. 草梁으로 移館한 뒤에는 倭館을 둘러싸고 양국이 통제강화를 시도했던 사실로 보아 ‘日朝通交의 재정비’로 평가했다.

근세의 ‘拔荷’(밀무역) 분석을 시도했던 荒野泰典은 倭館 이전의 배경에 伊藤小左衛門에 의한 무기밀수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1677년(寬文 7년) 博多 町人인 伊藤小左衛門이 금제품이던 鳥銃·硫黃·鎧·槍 등의 무기를 조선과 밀거래했던 것이 발각되었다. 이처럼 대규모의 밀무역사건이 발각됨으로써 幕府 및 對馬藩에 있어서 밀무역 대책이 문제시되었으며, 보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倭館의 이전이 필요했다고 한다[荒野泰典 1992].

③倭館管理問題

草梁倭館은 東萊府의 釜山鎮에서도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그 주변을 돌담으로 두르고 안에 있던 조선인 민가를 밖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조선정부측은 倭館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격리하는 정책을 취했다.

金東哲은 豆毛浦·草梁項에 200년 가까이 倭館이 설치되어 있던 점에서, 그것이 초래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과 특질에 대하여 論究했다[金東哲 2001 b]. 草梁倭館의 정비와 함께 倭館 근처에는 客舍, 宴大廳 등 조선 측의 출장기관이 세워지고, 倭館의 일상적

인 관리를 행했다. 특히 東萊府 관할 아래의 하급 관리인 ‘小通事’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그들 대부분은 草梁에 거주하는 자이며, 밀무역과 교역의 알선 등으로 축재를 거듭하는 등 倭館과 그 주변의 조선 주민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일본인이 倭館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의 생활물자(야채·생선 등) 확보는 倭館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倭館의 내부에는 조선인 관리 등 한정된 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倭館 밖인 門前에는 매일같이 시장이 열려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접촉하는 기회가 생겼다. 양국 간의 접촉이 때로는 범죄·사건으로 연결되고, 점차 日朝 양국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倭館을 둘러싼 양국 간의 문제에 대하여, 조선왕조에 의한 倭館의 관리라는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일련의 연구가 있다.

尹裕淑은 倭館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約條와 禁制 등 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이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하여 1683년에 제정한 癸亥約條에 대하여 검토하고, 밀무역(潛商)과 규정된 구역을 벗어난 일본인의 배회와 집단 시위행위(‘闌出’ 또는 ‘欄出’로 쓰기도 한다)를 엄하게 단속하는 조선 측 자세를 밝혔다[尹裕淑 1997].

倭館의 交奸問題(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과의 賣買春)에 대해서는 제임스 루이스가 先行研究를 다시 검토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日朝 양국 간의 문화와 윤리관의 차이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처분의 엄벌화가 취해진 역사적 배경에는 정보 유출의 방지라는 조선정부의 정치적 대책이 있었다고 한다[제임스 루이스 1997]. 交奸問題에 대해서는尹裕淑도 언급하고 있으며, 절도 등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조를 분석한다. 이에 의하면, 조선 측은 당초 관련자 전부를 死罪에 처하는 嚴罰主義를 취하지만,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자세한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단계적인 처벌을 결정한다는 방침의 전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尹裕淑 1998].

또한 [尹裕淑 1999]에서는 倭館의 유지관리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자세히 분석하지 못했던 倭館 건축물의 造營·수리문제를 들고 있다. 조선 전기에 倭館이 설치된 이후 기본적으로 관내의 건조물 造營·수리비용 및 인부는 조선 측이 부담하는데, 이 같은 사실에서 倭館의 관리가 통교업무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鶴田啓은 草梁倭館을 出島·唐人屋敷·横浜居留地 등의 다른 외국인 거류지와 비교를 통해서 그 특징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근세의 ‘鎖國’ 체제 아래서 예외적인 무역의 場으로서의 공통적이지만, 倭館은 상업활동만이 아니라 외교가 수반된 通交者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鶴田啓 2006].

④ 倭館으로 보는 文化史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는 近世倭館에 설치된 釜山窯에 대한 연구가 있다. 倭館에서 구운 茶碗 등의 도자기는 切形이나 型紙 등의 手本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御本茶碗’이라고 부르며, 江戸時代부터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釜山窯에 대해서는 淺川伯教가 정리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淺川伯教 1930].

이를 이어서 泉澄一은 對馬宗家文書の 문헌자료에 남아 있는 도자기 注文控 등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釜山窯 연구를 문헌사적인 측면에서 보완했다[泉澄一 1986]. 御本茶碗의 燒成에는 對馬藩이 크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그 대부분이 조선 각지의 흙을 이용했고, 大名이나 유력자의 상세한 주문에 응하여 도자기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田代和生은 근세 倭館에 관한 사료를 기초로 倭館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했으며, 日朝 양국의 문화가 교차하는 장소로서의 새로운 倭館像을 장소로점에서 주목된다[田代和生 2002].

食文化에 대해서는 朝鮮通信使의 接待料理 연구로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倭館에서 먹었던 요리라든가 日朝 양국인의 기호가 다르다는 것 등을 밝혔다[田代和生 1996].

醫學史·博物學史 분야에서는 享保年間に 8代 將軍 德川吉宗이 명했던 조선의 동식물 조사에 대한 연구가 있다. 吉宗의 命으로 對馬藩은 倭館을 거점으로 조선 전토를 대상으로 한 동식물 및 약재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倭館에 출입할 수 있는 조선 역관의 협력 없이는 완수할 수 없었다. 이 조사의 배경에는 本草學에 조예가 깊었던 吉宗의 인삼 국산화라는 희망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田代和生 1999, 2002].

그밖에 草梁倭館에 있어서 일본인의 服飾에 대하여 언급한 [鄭銀志 2007]도 있다. 이것은 倭館에서 의례에 참가할 때의 복장을 문헌자료와 倭館을 묘사한 그림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본국 對馬에서는 儉約令으로 인하여 비단 옷 착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倭館 안에서 朝鮮 役人과 접촉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령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어서 흥미롭다.

새로운 연구 동향으로서 建築史學的인 접근을 통한 왜관 연구를 들 수 있다. 夫學柱에 의한 일련의 연구는 倭館에 관한 기록에 보이는 <指圖>(조감도)와 繪畫史料를 기초로 近世倭館의 建造物群을 복원했다[夫學柱 1999·2000a·2000b·2004·2006, 市川眞光 2004]. 그 결과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3차원화상으로 공개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시각에 호

소하는 復元圖가 당시의 倭館 및 주변 지역의 경관을 널리 일반에게도 알리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京都文化博物館 등 2001].

⑤ 倭館關係資料

[長正統 1968]이 지적했듯이,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일본 측(對馬藩)의 기록이 증대한다. 그 주된 것이 對馬藩 宗家文書인데, 어느 시기까지 그 이용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연구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불충분했다. 이런 까닭에 연구자에 의한 적극적인 사료 소개가 행해지고, 점차 연구 환경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金義煥은 大韓民國 國史編纂委員會에 소장되어 있는 對馬島宗家文書 《和館事考》을 소개했다[金義煥 1983b]. 《和館事考》은 三浦의 설치부터 草梁倭館 이전 및 공사과정, 倭館에 설치된 制札, 조선인의 禁制 등 倭館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安彦勸吾는 對馬藩의 朝鮮語通詞인 小田幾五郎(宝曆 4년[1754]~天保 2년[1831])가 정리한 《草梁話集》을 소개했다[安彦勸吾 1989]. 이것은 朝鮮語通詞로서 草梁倭館에 체재했을 때의 건문을 모은 것인데, 倭館 내외의 건물과 항만시설의 상황, 倭館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朝鮮 役人, 倭館 주변지역의 지리적 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공적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生活者의 시각에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귀중하다.

최근의 근세 왜관관계 사료를 둘러싼 커다란 움직임으로 對馬藩宗家文書 중 왜관관계 사료의 마이크로필름화를 들 수 있다(田代和生 감수 《對馬宗家文書 第Ⅲ期 倭館館守日記・裁判記録》 ゆまに書房 全120冊 2004~2006년). 國立國會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對馬宗家文書 중에서 왜관을 총괄하는 館守의 日記인 <館守日記>와 외교교섭을 담당했던 裁判의 기록(<裁判記録>)이 마이크로화 대상이 되어 있다. 이들 對馬藩에서 작성되고 倭館에 보관되어 있던 文書群은 廢藩置縣 뒤에 倭館을 접수했던 外務省으로 이관되었고, 그 후 國立國會圖書館에 收藏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왜관 연구의 基幹資料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에는 <對馬宗家倭館關係資料>(指定件數 1593점)으로 國重要文化財로 지정되어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어찌됐든 전체가 10만점이 넘는다는 宗家文書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왜관을 연구하는 基幹資料의 하나가 될 것이 틀림없으며, 史料集과 마이크로필름 혹은 디지털기술의 응용 등으로 활용의 利便性이 향상되는 것이 왜관 연구의 촉진에 연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倭館의 繪畫資料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회화자료에서는 문헌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각지에서 개최된 박물관 등의 전시로 귀중한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했으며, 그 중에서도 倭館의 그림은 韓日 양국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소개했지만, 村井章介가 《海東諸國紀》의 付圖와 現地調査를 통하여 알게 된 지형 등의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中世倭館과 三浦의 모습, 그곳에서의 생활상을 복원했듯이[村井章介 1993], 倭館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유효한 자료이다.

近世의 草梁倭館에 대해서는 崔相振이 <東萊府使接倭使圖>(韓國國立中央博物館藏)을 토대로 본격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崔相振 2006]. 분석자료는 東萊府使가 일본사절을 향응접대하기 위하여 倭館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며, 繪圖의 내용구성과 건조물의 설치연대 등에서 경관연대의 상한과 하한을 탐색한 것이다. 다만 崔相振도 지적하듯이 회화자료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폭을 가지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대를 정확히 특정하는데 한계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이 소장하는 宗家文庫 사료 중에서 이미 圖錄 등에 게재한 것이기는 하지만 倭館繪圖 2점을 소개하려 한다[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 1997]. 圖1 <草梁之繪圖>(98cm×64cm)는 17세기에 豆毛浦倭館에서 移館을 모색하던 무렵에 그린 매우 간단한 草梁項 부근의 그림이다. 龍頭山을 중심으로 倭館 예정지가 붉은 선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그 선 안팎으로는 조선 민중이 거주하는 가옥도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圖2의 <倭館繪圖>(163.0cm×261.4cm)는 마찬가지로 草梁倭館을 묘사한 그림이며, 왜관 부지의 치수뿐만 아니라 倭館 내부의 건물 이름 및 배치가 적혀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에 있어서 왜관에 관한 연구를 戰前과 戰後라는 두 개의 시기로 크게 나누어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필자의 전문분야인 근세 왜관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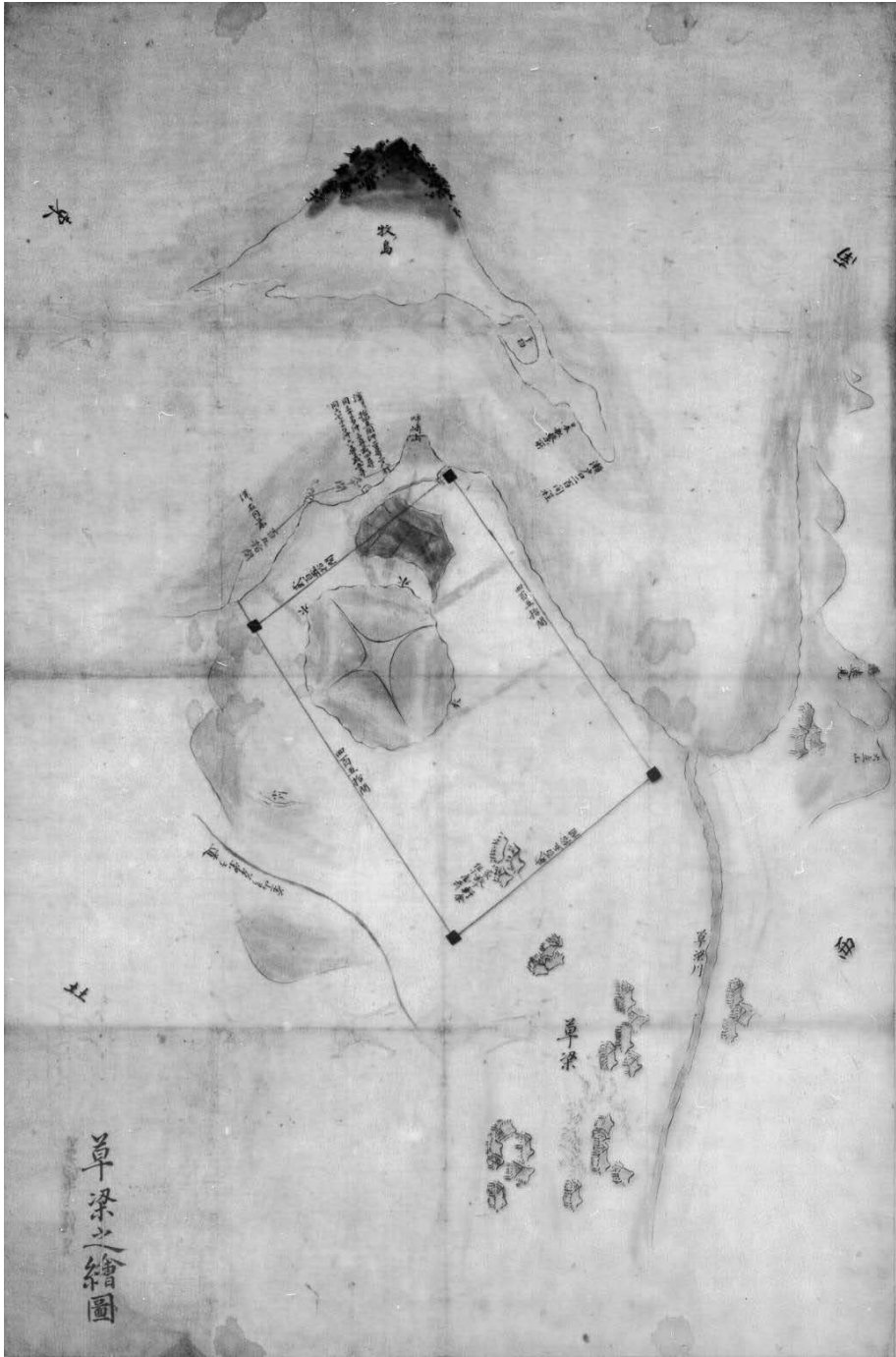
첫째는, 근세 왜관의 실태 해명을 보다 심도 있게 하는 일이다. 日朝關係史 연구의 진전으로 倭館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었고, 또한 對馬宗家

文書의 館守日記·裁判日記 등의 왜관관계 자료가 公刊됨으로써 연구 환경의 정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래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에 더하여 繪畫資料라든가 CG를 활용한 경관복원으로 보다 풍부한 倭館像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對馬歷史民俗資料館 소장의 倭館繪圖처럼 그림자료는 문헌자료에 의한 뒷받침이나 다른 그림자료와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도 있으며, 앞으로의 실증적인 연구 축적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또한, 日朝 양국에 있어서 ‘倭館認識’의 문제가 있다. 倭館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입장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 조선 측에 있어서 왜관은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오는 使節을 위한 客館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保持하고 있지만, 그 한편에서 일본에서는 倭館을 ‘朝鮮屋敷’ 내지는 ‘日本館’으로도 표현하는 것처럼 對馬藩 屋敷의 연장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다. 그와 같은 倭館 인식에 의거하면, 예를 들어서 17세기 후반에 對馬藩에서 나온 왜관이전 요구는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던 城下町·府中の 도시정비(藩主가 거주하는 棧原屋敷의 설치, 새로운 거리 구획 등)와 연동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倭館의 관리운영 상황을 보면, 주요한 건물과 항만시설 등의 건축·수축에 대해서는 조선 측 비용을 부담하는 등 客館으로서의 성격을 의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 交奸問題처럼 세세한 사안을 검증하면 倭館 소속을 둘러싼 心性 차원에서의 인식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근대 국제질서를 둘러싼 문제를 들 수 있다. 18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小中華’, 일본에서는 ‘日本型華夷意識’으로 日朝 양국 모두 자국 중심주의적인 경향을 강화해 간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다. 그런 와중에 倭館은 기본적으로 중세 이래 客館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對馬에서 파견된 使節은 조선 측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외교의례를 거행하고 있었다. 倭館이라는 무대장치가 수행했던 역할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圖 1〉 草梁之繪圖



〈圖 2〉倭館繪圖



〈표 1〉 倭館 文獻目錄

간행년	저자	표제	출전
1920	瀬野馬熊	<李朝の初世における對鮮の交通と三浦の居留地>	《朝鮮及滿州》 151
1920	高橋章之助	《宗家と朝鮮》	京城・北内印刷所
1921	釜山甲寅會編	《日鮮通交史 附釜山史》	
1922	武田勝藏	<日鮮貿易史上の三浦と和館>	《史學》 1-3
1925	小田省吾	<釜山の倭館と説門に就いて>	《朝鮮》 125
1929	小田省吾	<李氏朝鮮時代に於ける倭館の変遷 就中絶影島倭館に就いて>	《朝鮮支那文化の研究》 刀江書院
1930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彩壺會
1932	中村榮孝	<鮮初の對日關係と浦所の制限>	《朝鮮》202
1934	中村榮孝	<江戸時代の日鮮關係>	《岩波講座 日本歴史》6(舊版) 岩波書店 のち[中村榮孝 1969]
1936	小田省吾	《朝鮮陶磁史文献考 附釜山和館考》	學芸書院
1964	中村榮孝	<浦所の制限と倭館の設置>	[中村榮孝 1965] 所收
1965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7	中村榮孝	<外交史上の徳川政權>	[中村榮孝1969] 所收
1968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50
1968	中村榮孝	<江戸時代の日鮮關係>	[中村榮孝1969] 所收
1969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70	金義煥	《釜山地方の地名の由來》	大和出版社
1977	金義煥	<李朝時代に於ける釜山の倭館の起源と変遷>	《日本文化史研究》 2
1979	田代和生	<對馬藩と倭館貿易>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毎日新聞社
1981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3a	金義煥	<釜山倭館の職官構成とその機能について－李朝の對日政策の一理解のために－>	《朝鮮學報》 108
1983b	金義煥	<對馬島宗家文書《和館事考》について>	《日本文化史研究》 5
1983a	李進熙	<倭館・倭城を歩く(1)>	《季刊三千里》 30
1983b	李進熙	<倭館・倭城を歩く(2)>	《季刊三千里》 31
1984	李進熙	《倭館・倭城を歩く－李朝のなかの日本－》	六興出版
1986	田代和生	<近世後期日朝貿易史研究序説>	《三田學會雜誌》 79-3
1986	泉澄一	《釜山窯の研究》	關西大學出版部,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研究叢刊 5

1987	田代和生	<對馬藩の朝鮮米輸入と <倭館栞> - 宗家記録 《斛一件覺書》からみた朝鮮米の計量法>	《朝鮮學報》 124
1988	金義煥	<釜山倭館貿易の研究 - 15世紀から17世紀に かけての貿易形態を中心に>	《朝鮮學報》 127
1989	田代和生	<幕末期日朝私貿易と倭館貿易商人 - 輸入四 品目の取引を中心に>	《徳川社會からの展望 - 發 展・構造・國際關係》 同文館 出版
1989	安彦勘吾	<[資料紹介]草梁話集>	《帝塚山學院短期大學紀要 - 人文・社會科學篇 - 》 26
1990	田代和生	<近世における對馬と朝鮮>	宮田登編 《海と列島文化3 玄界灘の島々》 小學館
1990	信原修	<《誠信堂記》をよむ>	《朝鮮學報》 136
1991	崔永禧	<朝鮮後期の通信使と倭館の役割>	《季刊コリアナ》 91 - 冬
1991	제임스 루이스	<壬辰丁酉倭亂以降江華島條約以前の朝鮮か らみた對馬>	《地方史研究》 232
1992	荒野泰典	<小左衛門と金右衛門 - 地域と海禁をめぐる斷 章 - >	網野義彦編《海と列島文化 10》 小學館
1992	金義煥	<《倭人作拏謄錄》について>	《日本文化史研究》 16
1992	제임스 루이스	<近世朝鮮人の日本觀 - 倭館における公貿易 接待の費用を例示として>	《年報朝鮮學》 2
1992	田代和生	<日朝交流と倭館>	丸山雍成編 《日本の近世》 中央公論社
1992	朝日新聞社文 化企画局編	《宗家記録と朝鮮通信使展 - 江戸時代の日朝 交流 - 》	朝日新聞社
1993	村井章介, 荒 野泰典, 高橋 公明, 孫承喆	<三浦から釜山倭館へ - 李朝時代の對日交易 と港町>	《青丘學術論集》 3
1993	田代和生	<鎖國時代の日本町 - 朝鮮半島の倭館>	月刊 《しにか》 4-12
1994	加藤十握	<《愚塵吐想》翻刻>	《嚴原町資料館所藏古典籍目 録》
1995	村井章介	<三浦の亂時のソウル倭館>	田中健夫編 《前近代の日本 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6	池内敏	<倭館と漂流民の明治維新>	《日本史研究》 411
1996	木部和昭	<近世期における朝鮮漂流民と民衆>	《山口縣史研究》 4
1996	제임스 루이스	<江戸時代の釜山倭館の記録にみる日朝關係 - <迷惑>から相互理解へ>	《半島と列島のくぐに 日韓 比較交流史入門》 新幹社
1996	田代和生	<近世倭館の食生活>	季刊 《Vesta》 26
1997	諸洪一	<明治初期における日朝交渉の放棄と倭館>	《年報朝鮮學》 6

1997	尹裕淑	<近世癸亥約條の運用實態について－潛商・蘭出事例を中心に－>	《朝鮮學報》 164
1997	田代和生	<倭館における日朝關係と對馬藩－外交・貿易・文化交流をめぐって－>	《中央史學》 20
1997	ジェームズ・ライス	<釜山倭館における日朝交流－賣春事件にみる權力・文化の相剋>	中村質編, 《鎖國と國際關係》 吉川弘文館
1997	長崎縣立對馬 역사民俗資料 館編	開館二十周年記念特別展圖錄《對馬と韓國との文化交流史展》	
1998	尹裕淑	<約條にみる近世の倭館統制について>	《史觀》 138
1999	尹裕淑	<近世倭館の造營・修補について>	《歷史評論》 595
1999	夫學柱, 三宅理一	<倭館における港湾施設群の復元的研究>	《學術講演梗概集》 F-1
1999	田代和生	《江戸時代朝鮮藥材調査の研究》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0	金東哲 尾道博譯	<翻譯 朝鮮後期倭館開市貿易と東萊商人>	《日本文理大學商經學會誌》 19(1)
2000	田代和生	<徳川時代の日朝關係と倭館>	《鏡のなかの日本と韓國》 へりかん社
2000a	夫學柱, 鶴智子, 三宅理一, 渡辺洋子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1 館守家指圖の比較と編年>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意匠
2000b	夫學柱, 鶴智子, 三宅理一, 渡辺洋子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2 西館指圖の比較と編年>	《學術講演梗概集》 F-2, 建築歴史・意匠
2001	金東哲, 吉田光男譯	《朝鮮近世の御用商人 貢人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2001	金東哲, 金尙會譯	<民衆世界 十七～十九世紀の釜山倭館周辺地域民の生活相 >	《年報都市史研究》 9
2001	田代和生	<幕末期日朝私貿易と倭館貿易商人 : 輸入四品目の取引を中心に>	井上勝生編 《開國》(幕末維新論集) 吉川弘文館
2001	夫學柱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 その3 開市大廳指圖の比較と編年>	《學術講演梗概集》 F-2 建築역사・意匠
2001	京都文化博物館等	《こころの交流朝鮮通信使－江戸時代から21世紀へのメッセージ》	京都文化博物館, 京都新聞社
2002	田代和生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文藝春秋(文春新書 281)
2003	鶴田啓	<釜山倭館>	《日本の時代史14 江戸幕府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	尹裕淑	<一七世紀における日朝間の倭館移轉交渉>	《史觀》 149

2004	田代和生監修	《マイクロフィルム版 對馬宗家文書 第三期 倭館館守日記・裁判記録》	ゆまに書房
2004	石川寛	＜接收後の日朝交渉と對馬＞	《九州史學》 139
2004	夫學柱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その4 館守家および開市大廳の位置的考察＞	《學術講演梗概集》 F-2
2004	市川眞光	＜近世釜山における草梁倭館の復元的研究 その5 館守家の空間構成について＞	《學術講演梗概集》 F-2
2005	田代和生	＜近世倭館における朝鮮との交流＞	《역사와地理》 585
2005	崔相振	＜近世倭館における ＜接待＞にみる日朝關係＞	《韓國言語文化研究》 8(九州大學韓國言語文化研究會)
2006	金光林	＜東アジアにおける越境經營の先例－新羅坊・倭館・唐人屋敷を據点とした貿易と國際活動＞	《新潟産業大學經濟學部紀要》 30
2006	崔相振	＜《東萊府使接倭使圖》の再考－景觀描寫の分析と年代推定の限界性について－＞	《韓國言語文化研究》 12(九州大學韓國言語文化研究會)
2006	鶴田啓	《日本史リブレット41 對馬からみた日朝關係》	山川出版社
2006	夫學柱	＜近世日朝通交據点 ＜草梁倭館＞に關する指圖の比較とその編年＞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集》 609
2007	田代和生	《日朝交易と對馬藩》	創文社
2007	鄭銀志	＜草梁倭館にみる日本人の服飾＞	《アジア文化研究》 33
2008	佐伯弘次	《日本史リブレット77 對馬と海峽の日本史》	山川出版社
2008	信原修	《雨森芳洲と玄徳潤－朝鮮通信使に息づく ＜誠信の交わり＞》	明石書店